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6.10.1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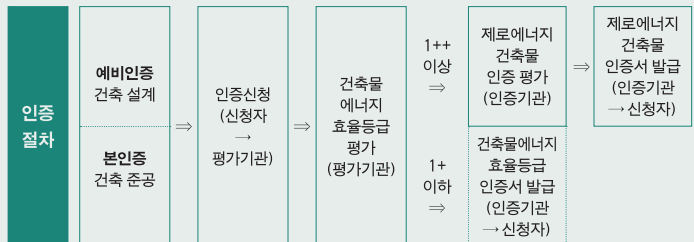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일부 주차 빌딩과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1++ 이상*을 만족하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과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인증 절차는 인센티브의 지급과 설계 점검 등을 위해 설계단계에 부여되는 '예비인증', 준공 후 받을 수 있는 '본인증'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안)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20% 이상 ~ 40% 미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 기반 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 조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3분의 1 수준(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60~90KWh/m²·년)

**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확대

환경부 자연정책과
2016.11.10.



인천 서구의 연희 자연마당 조성 전·후

자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 연희 자연마당 완공, 시민에 개방한다", 2016.7.5.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 내 공공공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부산 북구,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전북 부안군 등 모두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에 습지·개울·초지·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여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4개 지역*에 자연마당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에 조성될 4곳을 포함하면 전국 18곳에 자연마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북구 화명동의 사업 부지는 약 5만 8,000m²이며,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와 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기도 하다.

부산의 또 다른 사업 대상지인 기장군 일광면의 사업 부지는 일광택지구·일광천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예전에는 경작지였으나 장기간 사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약 2만 3,000m² 면적의 땅이다.

울산 북구 신천동 선정 부지는 면적이 5만 5,000m²로, 도시 내 남아 있는 소나무숲과 불법 경작지가 혼재된 지역이다.

전북 부안군 부안을 선정 지역(약 2만 8,000m²)은 도심과 접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논으로 사용되었으나,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습지 등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대전·군산·경산 3곳의 자연마당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특히 정부대전청사 앞에 조성되는 자연마당은 도심 한복판, 즉 시민들과 가까이 위치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콘크리트 광장 대신 숲·습지·초지 등 생태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완료: 서울 노원, 부산 이기대, 대구 동구, 전북 익산, 인천 서구
2016년 완료 예정: 대전 서구(정부대전청사), 전북 군산, 경북 경산
설계 및 착공: 광주 남구, 충북 청주, 전남 광양, 경남 밀양, 충북 충주, 전북 고창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2016.11.9.



동대문 옥상낙원의 조성 전·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 개최”, 2016.11.9.

‘동대문 옥상낙원’과 ‘수원시 안전골목만들기 10원칙’이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각각 프로젝트 부문과 학술연구 부문 대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대문 옥상낙원

사람의 발길이 끊겨 방치된 채 남아 있던 동대문 신발도매상가의 옥상공간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 프로젝트이다. 옥상에 남아 있던 18톤 정도의 폐기물이 치워지고,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 생산과 협업(co-working)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옥상낙원은 일반 주민들이 운영과 기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사업들을 펼쳐 공유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키워 갈 계획이다.

수원시 안전골목만들기 10원칙

수원시 골목길의 경관과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을 위한 10원칙*을 정립한 연구물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들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이 화두인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휴대용 리플릿으로 제작·배포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등하교길 어린이 보행안전 노란 발자국’을 비롯하여 최우수상 3점과 우수상 5점이 수상하였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 지하철역사 정보안내체계 혁신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체계 재정립 연구’등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각 1점씩 선정되었다.

* ①잘 보이게 하기 ②정보 제공하기 ③공간 활성화하기 ④거리 밝히기 ⑤예쁘게 꾸미기 ⑥거리 비우기 ⑦부드럽게 표현하기 ⑧막힌 공간 개방하기 ⑨유지관리하기 ⑩함께 가꾸기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서울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2016.11.1.



육아안심 우수건물 인증마크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집, 서울시가 인증해 드려요”,
2016.11.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 시는 300가
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보육친화적
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
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37개 항목은 다시 정량평가와 정
성평가 항목으로 나뉘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량평가에서는 건축물 환경의 물리적 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
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를 주로 평가하게 된다. 정성평가에서는 단지입지나
육아지원서비스(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유아 및 어
린이 용품 중고장터 개최 등)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주
요 평가 기준은 ▲실내구조가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
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는지 ▲공용출입구의 유
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 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
재를 설치하였는지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모두를 포함한다. 건축물에 따라
준공 전 건축물에 대한 ‘예비인증’, 신축·기존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본인
증 획득 후 2년 경과 건축물 대상의 ‘유지관리인증’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부
여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자치
구에서 서울시에 인증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설계 및 여성·육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 점검 등
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한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증된 단지에 대해 서울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주거지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
티브를 주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의 지진 대응 노력

대전시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2016.10.10.

울산시 세정담당관
2016.10.5.

경기도 토지정보과
2016.11.9.

‘대전시 지진 대응 종합대책’ 마련

대전시는 ‘대전시 지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지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가속화한다. 공공시설물 790곳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444곳에 대해 내진 성능을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시민 이용이 많은 건축물·교량부터 우선 보강할 방침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시 지방세 감면과 견폐율·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진안전성 인증제도’를 민간 건축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지진가속도 계측기와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진 대응 교육이나 훈련·홍보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앞당겨 추진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확대 등 종합지원 계획’을 시행한다. 당초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내진 성능 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진이 잇따라 지진 발생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개정 내용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울산시 내에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위해 대수선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신·증축 시 1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현행 지방세 관계법상 울산 경주지역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 실시

경기도가 우리 집과 주변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한 건물이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돼 있어 이용자의 집 외에 그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골목길 안전을 위한 CPTED 프로그램의 다양화

광주시 도로과
2016.10.27.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2016.10.30.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16.11.10.

CPTED 사업 후 평택 점촌안심마을 모습



안전컨트롤 타워

여성안심길

자료: 경기도 보도자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안심등네 만들어요!", 2016.10.30.

모듬지기 시스템 설치 모습



숫을대문, 모듬지기도가 설치된 골목 입구 사방등



블랙박스와 안전 펜스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모듬지기로 어둡고 깊은
막다른 골목을 지킨다", 2016.11.10.

광주시,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

광주시는 위급상황에 긴급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을 1,411곳에 추가 설치하였다. 광주시의 스마트 가로등은 가로등이 설치된 주변도로의 영상을 촬영하여 10일 이상 저장하는 '블랙박스형',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가로등 주변 50m 반경 안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보호자와 경찰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콘형'으로 구분된다. 설치 장소는 범죄·학교폭력·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원룸 주변 골목길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공중화장실 등이다.

경기도, 평택 점촌안심마을 CPTED 사업 완료

경기도가 평택시 서정동 점촌안심마을을 대상으로 한 CPTED 사업을 마쳤다. 사업 지역에는 여성안심길이 조성되었으며 생활도로 개선, 건축물 환경 개선, 보안등 야간조도 개선, 어린이공원 내 태양광블록(LED경관조명) 설치, 방법용 CCTV 설치 등이 이뤄졌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으로 셉테드 사업에 스마트 위치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여성안심길 두 곳에 스마트 위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컨트롤 타워'를 세워 스마트폰을 소지한 여성·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서울시, '모듬지기' 시스템 개발 및 설치

서울시는 광진구 중곡3동의 막다른 골목 지역을 하나의 '모듬'으로 보고 방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을 설치·운영하는 '모듬지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듬 입구에 설치되는 '숫을대문'은 블랙박스 카메라와 비상 버저, 경광등, LED 조명, 문안 순찰판으로 구성된다. 주택 주변 골목의 사적 영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듬지도', 주택과 주택 후미진 담장 위를 밝히는 '사방등', 자연감시기능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헬스존, 화분, 담장 도색, 안전 펜스 등)도 설치되었다. 모듬지기 시스템은 모듬대표, 주민, 구청, 주민센터, 파출소 등 다양한 관리 주체가 협력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 속 유희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

인천시 교통정책과
2016.10.20.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정비과
2016.11.7.



성산교회 활용안

자료: 대전시 보도자료, “옛 성산교회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 2016.11.7.

인천시, 지하철 역사 내 유희공간에 시민 공간 조성

인천시는 지난 7월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21개 지하 역사 내 유희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노년층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 역사에도 청소년 춤 연습장, 작은 도서관, 건강쉼터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먼저 서구청역과 인천대공원역에는 상시건강상담소가 마련되며, 남동구청역에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단련을 위한 탁구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모래내시장역, 시민공원역에는 청소년 댄스마루를 설치해 청소년들이 거리 버스킹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연 장소를 제공한다. 검암역에는 인천문예협회의 협조로 갤러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11월 중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연 전문가·브랜드 담당자 등이 참여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연중무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체감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전시, 성산교회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대전시가 양지근린공원 내 옛 성산교회를 지역 시민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앞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에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산교회를 매입하였으며, 지난 3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존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성산교회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된 지역 내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물의 지하층은 공연, 회의, 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철거나 확장이 자유로운 모듈형 공간으로 설계된다. 1층에는 주차장과 안내 공간이, 2층에는 지역 주민들의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과 커뮤니티 룸 등이 들어선다. 3층은 문화예술 분야별 창작공간을 조성해, 시민·예술가·청년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4층에는 지원센터 위한 관리·사무 공간이 조성되며, 옥상에는 ‘별빛공원’을 만들어 주민 쉼터와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